

계약서 안쓰고 근무도 초과...연예계 法위반 55건 적발

고용부, '연예매니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발표 연예기획사 2개사-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 대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연예매니저먼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저먼트 분야 12개사 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 해당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고용부는 "연예매니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때문에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며 근로감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소속 직원 중에서도 근무여건이 더 좋지 않은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연예기획사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 43건 등 총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는 연장근로수당 1600여만원 미 지급과 연장근로시간 위반 등이다. 또 이들 2개사는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특성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었지만, 1개사는 적법한 도입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과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하면 감독대상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수준도 크게 향상됐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여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140명 중 절반인 69명이 응했는데, 로드매니저 중 1명과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로드매니저 중 1명과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은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

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 중이다. 특히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방안 마련을 적극 권고했고,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 고용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전념을 기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비오는 날 열린 수요시위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제1552차 일 본근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생활 속 마약 확산'...경찰, 10월까지 특별단속·청소년 예방 교육

마약범죄수사대·일선 전담수사인력 88명 투입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이 공급자를 중심으로 마약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110일간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마약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밀반입 및 판매행위를 적발해 국민 생활 속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마약 관련 혐의의 검거된 인원은 1343명으로 지난해(1200명)보다 14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선 공급 및 유통 사범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외를 기반으로 한 공급사범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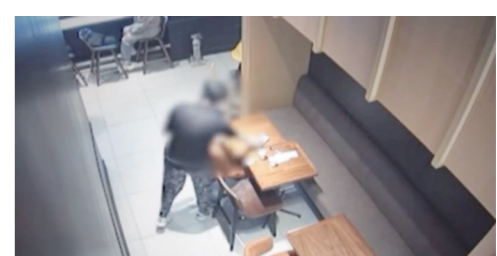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약범죄수사대와 일선서 전담 수사인력 총 88명이 각각 공급·유통 사범 위주, 투약사범 위주 단속에 투입된다. 해외 기반 마약 조직 외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해외 주재관 공조 등 국제 공조에 나서는 동시에,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유통·판매 조직에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기소 전 물수추진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 조직을 와해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밀집지역도 집중단속의 대상이다. 최근 외국인을 통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

되고 태국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가 허용되며 외국인 마약류 밀수입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경찰은 다크웹과 SNS,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사범 증가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2019년 653명, 2020년 718명, 2021년 2781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마약사범 초범 증가 및 저연령화 추세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의원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중독자가 경찰관서에 지수하는 경우 치료 기회를 받거나 형사처분 시 참작될 수 있으며, 마약류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카페서 자리 비우자 휴대전화 '슬쩍'...경찰, CCTV로 바로 붙잡아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의 휴대전화를 지갑으로 착각해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범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휴대전화 절도범, 긴박했던 검거 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한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옆자리에 있던 A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

를 비우자 A씨는 여성의 테이블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슬쩍 들고 달아나는 모습이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카페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과 피해자가 CCTV를 보며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던 바로 그때 카페 창밖으로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지나갔다. 경찰은 즉시 밖으로 달려 나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지갑으로 착각해 훔쳤



가 현금이 없자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생활용품 매장 진열대에 버린 휴대폰을 찾은 후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